

[ 바 둑 ]

국내랭킹 35위... '바둑판 7080' 살아있는 역사  
서봉수 '잡초 바둑' 부활 찬가

조혜연, 여류국수전 순항  
이민진 4단 꺾고 8강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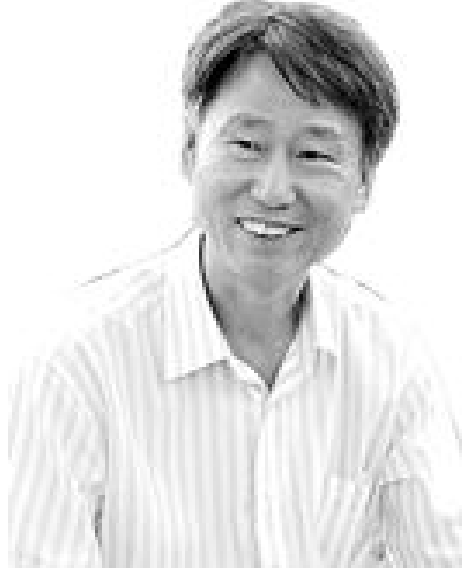


조혜연 7단이 여류국수 패권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조혜연 7단이 지난 12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2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16강전에서 이민진 4단에게 30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추격을 고삐를 놓치지 않고 막판 역전을 노렸던 이민진 5단은 이날 우상귀 패싸움 과정에서 중앙 백대마가 몰살, 결국 항서를 썼다. 조혜연 7단은 이하진 2단과 4강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같은 날 열린 하호정 3단 대 배운진 2단전에서는 하호정 3단이 165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삼성화재배 16강전, 中 신에 천야오에 격파 이변 예고

'고목에 꽃망울이 맺히고 있다' '똥장바둑' 서봉수(53) 9단이 최근 열린 삼성화재배 세계오픈 16강전에서 중국의 '당돌한 신에' 천야오에 5단을 꺾고 8강에 진출하며 부활 찬가를 부르고 있다. 천야오에는 올 LG배 준우승자. 프로기사로 '황혼녘'을 바라보는 9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열린 통합예선 2회전에서 탈락했지만, 와일드 카드로 출전한 뒤 노익장을 과시하며 이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 9단은 천야오에 5단과 대국에서 시종 판을 압도한 끝에 초읽기에 돌린 천야오에 5단으로부터 시간패를 이끌어내고 8강에 이복을 올리는 특수를 발휘했다. 그동안 와일드 카드는 한·중·일 3국의 흘러간 스타들의 '가요무대'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린하이펑 9단, 네웨이펑 9단, 한국의 김인 9단, 조지훈 9단 등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올드팬들은 지난 2003년 와일드 카드로 출전했던 조지훈 9단의 우승에 이어 서봉수 9단이 또 다른 기적을 일궈내기를 고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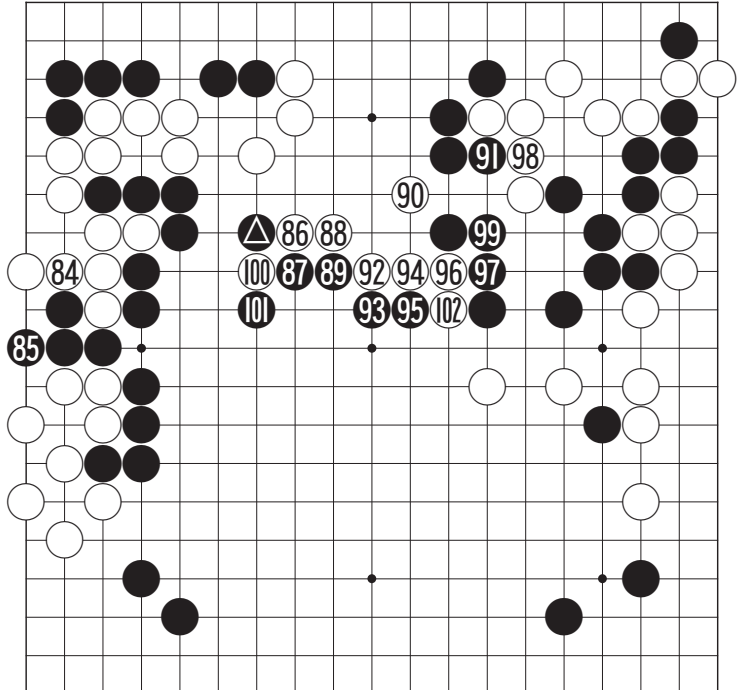
서봉수 9단은 객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국에서 늘 의외의 승부ろ 바둑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 1974년 조훈현 9단과 명인전 첫 도전기를 뒀을 때도 그랬다. 바둑계에선 당연히 '독존(獨尊)'이었던 조 9단의 우승을 점쳤다. 하지만 서 9단은 3-1로 조 9단을 가볍게(?) 제압했다. 중앙증권배(1991년)에서 이창호 9단을 이겼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0년 왕위전 본선에서 이세돌 9단을 꺾을 때도 객관적인 열세였다. 서 9단은 당시 기록적인 32연승을 달리던 이세돌 9단에게 2연승을 거두고 당당히 도전권을 거머쥐었다. 바둑팬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명국으로 기억되는 진로배 9연승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가운데 하나. '한물간 기사'라는 평가를 받던 그는 지난 1997년 유창혁, 이창호, 조훈현, 김영환 등 당대 최고 기사들이 줄줄이 쓰러진 전장에서 필마단기(匹馬單騎)로 진로배를 들어올렸다. 비록 현재 국내랭킹 35위에 머물고 있지만 서봉수 9단은 한국바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역사다.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15년간 이어진 '조서(曹徐)시대'의 주역으로서 한국 바둑사에 큰 족적을 남긴 대표적인 기사다. 이 때문에 조훈현 9단의 부활을 바라는 바둑팬들은 어김없이 서봉수 9단의 재기를 고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5회 光日盃 4회전 제5보(84~102)

白 이상의 5단 (광주시청A)      黑 유병수 5단 (포스코)



과연 돌이 부딪히자 유병수 5단에 게서 실수가 튀어나온다. 흑 95가 중앙을 막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악수가 되었다. 바둑은 이래서 재미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잡았으면 완전히 승세를 굳힐 수가 있었다. 백 2로 둔다면 흑 3으로 귀를 압박하여 5 이하 외길수순을 거쳐 9로 백 두점을 기본총계 잡고, 이어 13을 선수한 다음 15로 늘었으면 절대우세를 굳힐 수 있었다. 간발의 순간에 백 98을 선수로 잇게 되어 위기를 벗어나고 102로 뚫어 백에게도 총반격의 희망이 생겼다. 일종의 백병전이라 할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국바둑리그 '8월의 MVP' 이창호 9단



이창호 9단은 최근 한국기원이 발표한 9월 프로기사 랭킹에서도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이창호 9단은 8월에도 TV바둑아시아 준우승과 도요타렌소배의 선전으로 랭킹포인트 2만1천153점을 획득, 2위 (이세돌 9단 1만9천351점)와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1위 독주 체제를 굳혔다.

北 프로그래머가 만든 바둑 SW '은별 2006' 한국 상륙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바둑 초·중급자들을 위한 실전용 컴퓨터 대국 프로그램이 나왔다. 지금까지 개발된 대국용 프로그램 중 최고수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은별 2006'. '은별'은 지난 1998년 POST배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 처음 우승을 한 이후 지금까지 3년 연속 통산 5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은별'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참여한 중인 김찬우 4단은 "은별은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실제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은별 2006'은 인터넷(www.i-silverstar.com)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CD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3만3천원. 문의 02-2291-191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다"고 말했다. '은별 2006'은 인터넷(www.i-silverstar.com)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CD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3만3천원. 문의 02-2291-191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Advertisement for Megabox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movie listings and theater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건물매도' (Building Sale) and '모든업종 최고요지' (Best location for all busines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Real Estate Ag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타워(주)' (LC Tower Co., Ltd.).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21세기부동산건설(주)' (21st Century Real Estate Construction Co., Ltd.) and dining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Agent).